

지역 매아리

부안군-5개 금융기관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

부안군은 내수부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5개 금융기관(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 전북은행 부안지점, 부안신협, 부령새마을금고)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부안군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8000만원을 출연해 38억원에 상당하는 자금을 관내 22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다.

내년도에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해 30억원에 상당하는 자금을 관내 1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요건은 기존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서 4등급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내용은 기존 최고 2000만원 한도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며 상환기간(5년)내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안군이 지원한다.

부안군 박연기 미래창조경제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안심가로등' 설치로

에너지절약 · 보행안전 확보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8월에 '2018년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말까지 천변 벚꽃길 일부구간과 국민체육센터 주변 등에 태양광 가로등 50본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사업비 5억여원을 전액 후원하고,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시행하며 태양광 가로등 설치 외에 설치대상지 내의 복지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안심가로등은 낮시간에 충전된 태양에너지로 야간에 불을 밝히는 태양광 LED가로등으로써 내장배터리 완전 충전 시 5일 이상 점등이 가능하다.

장미철이나 추운 겨울철에도 사용이 가능한 전기절약과 탄소발생 저감 등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이 된다.

태양광 가로등 사업과 연계된 '반딧불 희망 프로젝트 사업'은 안심가로등 설치지역인 상교동과 내장상동이 대상지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기초생활수급자 등) 41가구를 선정해 생계비, 난방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우범 취약지 해소를 위한 가로등 설치 예산 절감과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깨끗한 어항, 어업인의 안전 지킨다

고창군, 6억2500만원 투입

구시포항 공동보관시설 준공

고창군이 구시포항 어구 공동보관시설을 준공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시포 어민들은 그동안 50~70m에 이르는 어구(그물)를 보수·보관할 시설이 없어, 군도와 지방도의 길에서 정리·보수 작업 후 적치해 왔다.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어항 미관 훼손과 어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불편함이 컸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6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9600㎡, 창고 2동(409㎡)규모의 어구 공동보관시설을 조성했다.

구시포 어민들은 "어구를 보수·적치할 공간이 없어 늘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변에서 보수작업을 하였던



고창 구시포 어구 공동보관시설 사진.

데,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구 공동보관시설이 건립되어 매우 좋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편의와 효용성을 높이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1일 제2청사 대강당에서 교육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읍단풍미인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 선도 농업경영인으로

정읍 미래농업의 주역 단풍미인대학 졸업식 가져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재련)는 지난 21일 제2청사 대강당에서 교육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읍단풍미인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최우수상인 농촌진흥청장상에 윤기홍(수성동)씨가 수상하였고 우수상인 정읍시장상은 조형남(정우면), 강경숙(임암면), 전복득(상평동)씨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단풍미인대학은 약용작물과, 친환경유기농업과, e-비즈니스과, 생활문화과 4개 과정으로 운영됐다.

약용작물과는 약용작물 재배 및 생리, 약초이론 이론 및 실습, 약초 가공 및 유통 등에 대한 내용으로 운영되었으며, 친환경유기농업과는 유기농업의 의미, 토양관리, 친환경적 병해충관리, 친환경 농자재 활용, 농가현장 컨설팅 등으로 운영됐다.

또한 e-비즈니스과는 블로그·페이스북·모바일을 활용한 마케팅, 이미지 활용 홍보전략, 고객관리 등 교육생이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됐다.

생활문화과는 차에 관한 전반

적인 강의로 차의 이해를 비롯한 보관방법, 발효차·허브차의 활용, 꽃차 예절 및 실습 등을 통해 취미생활 뿐만 아니라 농업의 소득창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됐다.

졸업식에 참석한 김인태 부시장은 "정읍단풍미인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힌 지식을 농업경영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리더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국회 지도부 집중 공략

유진섭 시장, 국회예결위 방문 상임위 · 미반영 4개 사업 증액 요청

유진섭 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시장은 21일 국회 예결위를 방문해 위원장인 안상수(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재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을 만나서 증액사업과 반영되지 않은 모두 4개 사업(126억원)을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4개 사업은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축산분뇨 악취마을농장 이전단지 조성 ▲내장산리조트연계도로 조성 ▲정읍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농소~하모)이다.

유 시장은 이에 앞서 7일과 19일에도 이수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당)을 만나 정읍시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유 시장은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틈나는 대로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특히 한 톨이라도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원은 물론 전북 연고가 있는 국회 의원 등 여·야를 떠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 5천200억원 이상이 최종 확보될 때까지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갖고 마지막까지 예산 확보 활동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농업생명식품산업 살리는 현장행진

유기상 군수가 농업현장에서 소통하며 농업발전의 해답을 찾고 있다.

군은 유 군수가 공음면 학원농장 고창정보리밭 거점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인근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21일 밝혔다.

학원농장은 매년 봄이면 25만평 드넓은 대지에 푸른 물결로 축제 기간에만 5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고창정보리밭축제'와 뒤이어 이어지는 '해바라기축제', 가을이면 '메밀꽃잔치'로 사계절 방문객들이 발걸음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농업 1번지다.

군은 '고창정보리밭축제' 등 학원농장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리심기와 산책로 조성, 화장실 신축공사에 박차를

가하며 내년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산책로는 정보리밭에 새로운 둘레길을 조성하여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각도의 정보리밭 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며, 화장실은 수유실과 물품보관실을 갖추어 축제장 내에 추가로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축제위원회와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경관농업의 자부심을 갖고 내년에 열릴 '고창정보리밭축제'가 농업과 관광, 문화가 결합된 내실 있는 축제이자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지난 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19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며, 토양개량제는 규산질과 석회고토·패회석 3종이다. 유기질비료는 종류와 등급에 따라 (20kg 기준) 1,400원에서 1,700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토양개량제는 토양성분 검사결과에 따른 기준소요량을 신청 면적에 따라 공급량을 산

출해 기부담 없이 무상으로 지원한다. 아직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을 미처 신청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내달 4일까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하면 된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사업(2016년 신청 후 2017~2019년 까지)으로 2019년도 공급 대상지역에 대한 경영체가 경작관계가 변경되었거나 현재까지 미 등록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a cartoon mascot,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